

불서재고 낙엽쌓이듯 '창고가득'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꼭 필요도 하는 사람의 손에까지 전달되기는 참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즘과 같은 출판물의 홍수속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때문에 밀려나 창고에 쌓여가는 불서들도 많다. 이러한 구(舊)불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계출판사가 연합한 정기적인 재고도서 판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서들은 일반책들과는 달라 시기를 타지 않지만 출간된지 오래됐거나 잘 팔리지 않아 반쯤된 책들은 그대로 창고에 쌓여두기 일쑤로 재고도에 대한 딱부러진 처리방안이 없다. 한 출판사의 경우는 재고도서 대부분을 군부대에 기증한다. 교계출판사들은 재고도서 처리문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고도서 할인판매에는 발끈할

군부대기증 등 대부분 법보시 처리 출판사-서점 '접속' 판로 마련해야 책방 여시아문, 11월 '재고도서 특판'

을 갖지 않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계출판사 대부분이 소규모인데다 불서가운데 상당수가 스님이나 사찰의 개별적인 요구로 만들어 지고, 이로 인해 팔다 남거나 반쯤되어 온 책은 법보시용으로 소비되고 있기때문. 여기에 정가제 질서교란과 신간도서의 판매부진에 대한 우려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일반 출판물 재고도서의 경우 이미 대형서점의 기획행사나 상설코너, 대학축제기간, 알뜰장터 등의 행사를 통해 재고도서 판매시장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교적 활발하게 재고도서가 유통되는 곳은 대형서점. 교보문고는 도로공원을 활용해 볼가을로 '구간우량도서 열가판매전'을 연다. 처음에는 가을에만 시작했다가 독자들의 호응이 좋아 봄에도 연다. 각 출판사에 공문을 띄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10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큰 행사에 속한다. 영풍문고도 4월부터 인문서가 옆에 상설로 '구간할인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30개 출판사가 참여해

판매량의 60~70%선에서 재고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불서전문 책방 여시아문도 11월 한달간 재고도서 특판전을 실시한다. 책방 여시아문은 불교출판사들의 동참을 통해 재고도서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교계출판사들이 재고도서를 사찰 등에 법보시로 기증해 재고도서전 참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고도서의 법보시도 뜻깊은 일이지만 불교출판 발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고도서 판매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고도서 판매로 출판사들은 겨우 제작원가를 갚는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서출판과 판매의 원활한 상호교류 등으로 창고에 무작정 쌓여 있는 불서들이 불자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고도서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불교출판사와 서점 등의 단일연합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인문서가 옆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영풍문고의 '구간할인도서 코너'



'문화유산에 담긴...'
'상상속의 얼굴...'
얼굴소재 책 두권 출간

한국인다운 미소는?

얼굴을 소재로 한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와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가 발간돼 화제다. 김대성씨(한국일보 논설위원)가 쓴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대한교과서 펴)는 회화, 조각, 공예 등 72가지의 문화유산에 담긴 미소를 통해 예술로 승화된 웃음의 문화를 화보와 함께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문화유산 중에서도 불교문화에 깃들여 있는 미소는 한국의 미소를 대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나리자의 미소와는 근본적으로 격을 달

리하는 신라의 반가사유상, 가는 웃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피가 도는 꿈의 미소 불국사 석굴암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발전해 온 원동력이 웃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얼굴은 문화전반에 대한 하나의 적도라는 점에서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을유문화사 펴)는 또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얼굴을 소재로 한 동서양의 건축물과 예술작품,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유래와 문화풍속을 아우르고 있다. 저자 박영수씨는 특히 불교문화에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상의 얼굴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은 내리감김 상태라는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강역사상의 특징이 중국 및 일본의 것과 달리 무섭다기보다는 약의 없는 순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찰한다. 이 책에는 이밖에도 십이지신상과 스핑크스, 사천왕과 신선 등에 나타난 문화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흥미로운 유래도 소개하고 있다. <은>

삼중 스님 택시에서 나는 인생담 '스님 굴비맛...'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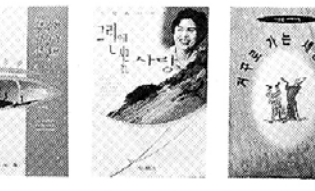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 온 박삼중스님(자비사주지)이 택시 안에서 바라본 37가지 인생이야기 <스님 굴비맛 보셨습니까>(산미디어 펴)를 펴냈다. 연이은 강의로 하루에도 수차례 택시를 이용하는 스님이 택시 기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묶은 것으로 삶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단면들이 잘 묘사돼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은 "인간다운 대접도 못받고 불신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 중의 하나가 택시 기사들입니다. 그러나 소외 받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마다 꼭 한 번 그들의 삶을 담은 책을 펴내고 싶었습니다"라며 출간동기를 말한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동료들을



위해 20년 무사고이면서도 개인 택시 면허증을 양보한 어느 택시 기사, 돌지각한 손님에게 밀시당 하면서도 곳곳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감옥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며 스님을 친히 모신 전과 7범의 택시기사 등과의 만남을 통해 스님은 또다른 자신의 모습과 삶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한다. <은>

새로 나온 책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이 책은 영원을 넘어서까지 변함없는 지고의 가치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자아적인 지성에 의지하던 시대는 곳곳에서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성을 감성속에 녹여서 빛나는 새로운 가치로 발산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서 고독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 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삼양 7천원>
▲그림에 심은 사랑=황무지였던 장호원 골프장에 열기가 뜨기까지 골



프장을 일구었던 (주)장호원 골프클럽 대표이사 이정행보살의 에세이집. 이 책은 짧은 교사생활,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우며 회사경영자로서 바쁜 나날속에 어머니로서 못다한 모성애, 직원들에 대한 애정등이 진솔하게 표현돼 있다. 또한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저자의 인생관, 경험담 등을 엿볼 수 있다. <우리출판사 7천원>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과학과 기술은 내일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아진 것 없이 거꾸로 돌아간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교수는 에세이집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통해 현재 우리삶을 바라본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환경문제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담아내고 있다. <빛샘 6천5백원>

정심계관법 지운 번역

수행자에게 보낸 도선율사의 가르침

정심계관법(淨心誡觀法)은 수행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거울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함에 계로서 관하는 법'을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당나라 남산 율종의 종주인 도선율사가 지은 것으로 수행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가르침의 글들이 알기쉽게 쓰여져 있다.

처음 불문에 입문한 초발심자에게 수행의 출발과 수행해 가는 과정을 정심(淨心)으로 귀결하고 있다. 정심이 바로 신심과 발심의 근원이고 출가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출가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 재물과 색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로 깨달음과 자리이타의 청정함을 강조하는 이 책은 송광사 강원장주 지운스님이 번역했다. <토방 7천원>

여래장 조수동 지음

여래장사상 본질·발달과정 심층분석

여래장사상은 증심심안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으로서 여래장이 있다는 사상이다. 해탈의 내적 주체로서의 마음에 대한 고찰에서 증심과 여래와의 등질성(等質性)을 강조하고, 거기서 성불의 근거를 추구한다. 경산대 조수동교수(동양철학)는 이러한 여래장사상의 발달과정, 본질과 구조 등을 <여래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다.

여래장 사상의 모태가 된 인도의 사상체계를 고찰하고, 기본 경전인 여래장 삼부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래장의 본질과 구조를 살피고 있다. 특히 여래장사상의 발달과정으로 여래장과 불성과의 관계, 일체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승기신론소 발기>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율호스님의 여래장설을 고찰했다. <이문출판사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일	대원경사
2	생환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부도론(말한대미묘한 행로)	일타	효림
4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5	사심구제란 무엇인가	효림	행원
6	선(작은책 2)	지현	민족사
7	명상길라잡이	박석	도솔
8	부소유	법정	범우사
9	불교인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신 반야심경 강의	혜담	불교시대사

구입문의: (02)737-0695

기(氣)와 영기(靈氣)가 강력한 만다라 스티커

우주에너지의 결집체인 만(卍). 이 만으로 만법계진(卍法界陣)이 처져 있는 만다라(卍多羅) 스티커는 무량한 수의 불·보살님의 법신이 들어 있어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 주며 행운을 줄 것입니다.

이 만다라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과 지혜가 생기고 순간적 불의와 재난(수재·화재·강도·질병·교통사고) 등이 예방됩니다. 사고를 예방하지만, 만약에 사고시 차는 꾸겨져도 사람은 살아 나오는 위대한 기력(氣力)·영력(靈力)·신력(神力)등이 있으며, 특히 영가(靑身)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기(氣)와 영기(靈氣)가 가득한 만다라의 세련된 제품으로는 시계·넥타이·옷·방석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용(用)을 모른다면, 과연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세트 6장 18,000원 ●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원심선원
02)606-2153 · 5691

제34회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본 계단은 6·25 피난시절인 1951년도에 큰스님대가 감로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사부대중들에게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분의 지름길이란 보살계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청정율사이신 자운대종사께서 보살계를 설하시어 수계받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운대율사의 수계자인 가산 지관 큰스님께서 그 계맥을 이어받아 제34회 보살계의 큰법문을 3일간(오전10시, 오후2시 두번) 설하오니 많이 수계 동참하시어 국태민안과 가내안녕을 이루어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계법사: ① 전계대화상 : 가산 지관 ② 갈마아사리 : 오륜 법회 ③ 교수아사리 : 황산 혜총
- 수계일시: 임제일 - 음력 10월 4일(양력 11월 3일) 오전 10시 회향일 - 음력 10월 6일(양력 11월 5일) 오전 9시
- 수계장소: 감로사 천화계단
- 동참금: 3만원
- 지참물: 꽃, 공양미, 과일 약간씩
※보살계 수계산림후 회향방생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